



EMERiCs

신종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www.emerics.org/>

2018. 11. 22. | 아프리카·중동

## 「이슈&amp;트렌드」

## 에리트레아, 유엔 제재 해제의 배경과 시사점

작성 | 김예진 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 11월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2009년부터 에리트레아에 가하던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함.
- UNSC는 에리트레아가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구분된 알샤바브(Al-Shabaab)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부티와의 국경 전쟁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09년에 에리트레아에 대한 제재 결의 1907호를 통과시킨 바 있음.
  - 제재 해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무기 금수, 주요 정계 인사의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의 제재가 즉시 해제됨.
  - 단, 접경국가인 지부티와의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관련하여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UNSC에 보고하도록 요구함.<sup>1)</sup>

그림 1. 아프리카의 뿔 및 주변 국가 지도



출처: Meester, Van Den Berg and Verhoeven(2018), The Political Economic of Gulf Investments in the Horn of Africa, CRU Report,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에리트레아의 제재 해제가 가능했던 주요 이유로는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지경학적 중요성 증가 △알샤바브 지원 의혹에 대한 유엔 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음.
- (주변국과의 관계) 2018년 하반기에 들어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됨.
  - 에티오피아의 아흐메드(Ahmed) 총리가 4월에 취임하면서 에리트레아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7월 9일 국경 분쟁을 종식하고 통상관계를 회복함.<sup>2)</sup>

1) 2008년에 발발한 에리트레아-지부티 국경 분쟁은 에리트레아가 주요 해상 무역 거점으로 꼽히는 두메이라 섬과 라스 두미라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불거짐.

- 이어서 7월 30일에는 에리트레아의 아페웨르키 대통령과 소말리아의 압둘라히 모하메드 대통령이 만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9월 6일에는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소말리아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함.<sup>3)</sup>
  - 또한 지부티가 지난 7월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 중재를 요청한 바, 아페웨르키 대통령이 이에 호응하여 9월 18일에 지부티의 필레 대통령과 만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함.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경제적 이유로, 유럽은 난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 뿔 지역의 안정을 추구함.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견제하고 예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군 기지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에리트레아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함.<sup>4)</sup>
  - UAE의 항만 운영 회사인 DP월드사는 아프리카 뿔 지역의 최대 항구인 지부티 항만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아삽 항구(에리트레아) 송유관을 건설을 통해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자 함.<sup>6)</sup>
  - 한편 유럽은 에리트레아의 강제 징용, 인권 탄압, 경제난 등의 이유로 유럽으로 향하는 에리트레아 난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프리카 뿔 지역의 안정을 추구함.
  - UNSC에서 발족한 소말리아·에리트리아 감사단은 에리트레아의 알샤바브 지원 의혹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함.
  - 2011년 보고서에서 에리트레아가 알샤바브를 지원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11월 8일, UNSC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함.
- 제재의 해제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제약적이지만 아프리카 뿔 지역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점진적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여전히 해소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함.
- 기존의 제재가 15명의 정계 인사 및 알샤바브의 경제 활동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제재 해제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프리카 뿔 지역의 주요 경제국인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투자가 늘어나면서 점진적인 간접적 경제 효과가 예상됨.

2)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의 적대적 관계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으로 에리트레아를 식민지배한 이탈리아가 철수한 이후 에리트레아가 에티오피아에 흡수되었으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 1993년에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함.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 국경 분쟁으로 인해 8만 명 이상의 사상자(추산치)가 발생함. 그 이후 무력 갈등은 없었으나 종전이 선언되기 전까지는 ‘無전쟁-非평화’ 상태를 유지함.

3) 에티오피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소말리아는 에리트레아가 소말리아 반정부 세력에 무기를 제공한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국교가 단절됨.

4) UAE는 에리트레아에 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부티에 군 기지를 건설 중에 있음.

5)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경제적, 군사적인 요충지로 지부티를 중심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미국, 중국, 터키,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군 기지를 운영 혹은 계획하고 있음.

6) 2000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동아프리카 뿔 지역 누적 투자 규모는 각각 49억, 50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걸프 국가들의 동아프리카 뿔 지역 무상원조 누적 규모는 60억 달러 수준임(Meester, Van Den Berg and Verhoeven. 2018, Riyal Politik: The Political Economic of Gulf Investments in the Horn of Africa, CRU Report,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내륙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지부티 항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리트레아의 항구 및 수송 인프라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걸프 국가들과 중국도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에리트레아도 기존의 고립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부티와 같이 상업,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장점을 부각시켜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지부티와의 국경 분쟁과 취약한 거버넌스 제도 등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서방에서는 경제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EMERiCs**

#### 참고자료

Africanews, Reuters, UNHCR,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등